

## 시인과 시민교육\*

— 호라티우스의 <백년제 찬가>

김진식\*\*

### [초 록]

이 논문의 목표는 호라티우스의 <백년제 찬가 *carmen saeculare*>를 통해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시인과 시인의 사회적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찍이 Werner Jaeger는 *Paideia*를 통해 희랍세계를 중심으로 축제와 주연을 통한 시인-교육자론을 주장하였다. Jaeger의 이론에 입각하여 희랍에서와 유사한 축제를 로마에서 찾는다면, 기원전 17년 아우구스투스가 주관한 백년제 *ludi saeculares*가 한 사례다. 이때 시인 호라티우스는 백년제의 마지막 행사에 불릴 노래를 지었다. <백년제 찬가>는 그동안 거의 아우구스투스 통치를 선전하는 찬양시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축제를 통한 시인의 교육자적 역할 수행의 모습을 <백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7037747).

\*\* 정암학당 연구원

주제어: 호라티우스, 아우구스투스, 백년제, 백년제 찬가, 시인-교육자, 베르너 예거, 파이데이아

Horace, Augustus, Ludi Saeculares, Carmen Saeculare, Poet-Educator, Werner Jaeger, Paideia

년제 찬가>에서 보려고 한다. 호라티우스는 <백년제 찬가>에서 공동체를 향해 교육자적 모습을 보여주었는바, 막강한 권력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로마 시민이 듣는 가운데, 그는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시민들이 가져야 할 생각과 태도를 노래했고 가르쳤던 것이다.

## 1. 서론

Werner Jaeger가 『파이데이아 *Paideia*』 I-II권에서 주장한 것은 한마디로 시인-교육자론이다. 그는 “교육자”<sup>1)</sup> 호메로스에서 시작하여 상고기 서정시인들을 거쳐 고전기 비극과 희극에 이르기까지 희랍 시인들의 교육자적 면모를 검토하였다. 우리는 로마 시인들에게 시인의 희랍적 위상과 역할이 계승되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희랍의 시인-교육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주된 현장이 축제와 주연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로마 시대의 축제에서 로마 시인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sup>2)</sup>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진 로마 문학 가운데, 축제와 주연의 현장에서 시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확인할 전거는 매우 부족하다. 로마 문학의 비조 리비우스 안드로니쿠스에게 로마 정부가 기원전 240년의 로마 축제에서 제1차 카르타고 전쟁 전승 기념 공연을 맡긴 사실, 로마 정부가 한니발 전쟁의 유리한 국면 전환을 기념하여 감사송(感謝頌)을 위탁한 사실, 로마 정부가 그의 사회적 공헌을 인정하여 아벤티누스

---

1) Jaeger (1954) p. 63.

2) 사실 호라티우스 시대에 이르러 시인이 교육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된 기회는 축제가 아니라 오히려 출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학』에서 호라티우스는 “글쓰기”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시학』 389행 이하 “없앨 수도 있으니 출판치 않으면, 뱀은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delere licebit, quod non edideris; nescit vox missa reverti.*”

언덕의 미네르바 신전에 시인 단체의 공동 예배소를 허락하였다는 사실 등은 로마에서도 축제와 주연에서 시인의 역할이 있었음과 그것을 통해 시인의 사회적 지위가 확보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sup>3)</sup> 하지만 그 이상의 상세 사항, 특히 공연된 작품 자체에 관해 알려진 것은 전무하다.

하지만 공화정 말기 호라티우스에 이르러 사정이 달라진다. 로마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시인이 축제에서 공연한 문학 작품으로 온전하게 시문이 전해지는 것은 호라티우스의 <백년제 찬가>가 아마도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백년제 찬가>가 어떻게 공연되었는지를 알려질 기록도 발굴되어 우리는 축제 전체의 진행과 구성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히 알게 되었다.

기원전 17년 아우구스투스는 백년제(ludi saeculares)를 주관한다.<sup>4)</sup> 목전에 따르면, 황제정의 백년제는 공화정의 백년제와 다른 주기를 따랐고 그 성격마저 달라졌다.<sup>5)</sup> 공화정의 백년제 속죄의식은 저승의 신들을 위해 저승의 제단에 올리는 3일의 야간 제사였다. 기원전 49년에 개최되었어야 할 백년제는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개최되지 못했다. 공화정의 몰락과 함께 이런 백년제도 종말을 고했다. 아우구스투스의 새로운 백년제 축제는 공화정 백년제의 연속과 계승을 의도하였고 사실적

3) Mommsen(1902) p. 885.

4) “saeculare”는 흔히 백년 단위의 세기를 의미한다. Varro, *LL* vi 11 “Seculum spatium annorum centum vocarunt, dictum a sene, quod longissimum spatium senescendorum hominum id putarunt. 그들은 백년의 길이를 세기라고 불렀다. 이는 노인에서 유래한 것인바, 세기는 늘어가는 인간들의 가장 큰 시간 길이이기 때문이었다.” 아우구스투스의 한 세기는 110년이었다. 처음에 백년제는 100년 주기로 거행되었고 명칭도 거기에서 유래한다. 아우구스투스 이후 황제들은 다시 100년 주기의 세기를 거행한다.

5) Mommsen (1891/1976) pp. 352-353. Nilsson (1920)이 정리한 것에 따르면 기원후 3세기 문법학자 Censorinus와 기원후 5세기의 역사학자 Zosimos 등이 제시하는 백년제 주기는 456, 346, 236, 126의 110년 주기와 449, 348, 249, 149의 100년 주기가 나타난다. 110년 주기에 따르면 다음 백년제는 기원전 16년, 100년 주기에 따르면 다음 백년제는 49년에 개최된다.

으로 공화정 백년제 축제의 내용을 수용하긴 했지만, 전적으로 새로운 질서와 내용의 축제였다.

<백년제 찬가>는 백년제의 마지막 날에 불린 합창시다. 백년제 비 발굴에 참여한 노년의 몸젠(1891)은 <백년제 찬가>에서 카피톨리움 신성(유피테르)과 팔라티움 신성(아폴로)의 대립 내지 양립에 주목하였던바, 이후 이런 대립 내지 양립을 구질서의 후퇴와 신질서의 수립으로 해석한 학자들은 아우구스투스를 상징하는 팔라티움 신성의 전면 등장과 부각을 강조한다.<sup>6)</sup> 그리고 위대한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그가 열어갈 로마의 황금시대를 찬양함이 <백년제 찬가>에서 호라티우스가 품은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Warde Fowler (1910)가 처음 제시한 이런 해석은 김덕수(2103)와 김활란(2016)까지 이어진다.<sup>7)</sup> 몸젠 이후 찬가를 본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학자로 평가받는 Warde Fowler는 이런 대립에서 새로운 신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전통적인 신들을 뒤로 물림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부각하려는 의지를 읽어냈다. 이는 “옛것은 사라지고 새롭고 영광스러운 시대가 열렸다”<sup>8)</sup>는 것을 백년제에서 선포하려는 아우구스투스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고, 여기서 시인은 다만 수행자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이런 신구(新舊)의 대립을 강조하는 이런 해석에 반대하여 신구(新舊)의 균형을 읽어보려는 시도는 이미 Jean Gag e (1931/1972)에서 시작되었다.

6)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28년 팔라티움 언덕에 위치한 그의 저택에 승리의 여신 제단과 더불어 아폴로 신전을 건립한다. 최혜영(2015) p. 371 이하에 따르면 팔라티움의 아폴로 신전은 “로마의 전통적 중지였던 카피톨리움을 능가할 정도의 권위 있는 장소가 되었다.” 시빌라 신탁집도 카피톨리움에서 팔라티움의 아폴로 신전으로 옮겨진다. 최혜영은 논거의 하나로 <백년제 찬가>의 공연이 카피톨리움보다 먼저 팔라티움에서 열렸다는 것을 추가한다.

7) 김덕수(2013) p. 227 이하는 백년제 찬가를 “원수정의 개선행진곡”이라고까지 주장한다. 또한 백년제를 통해 아우구스투스가 “과거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강조함으로써 기대감과 희망을” 불어넣었다고 백년제를 평가한다.

8) Fowler (1910) p. 146.

그는 과연 본색을 잘 드러내지 않던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대립이 시인을 통해 전면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독려하였거나 묵인하였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그렇다면 왜 부각시키려는 대상인 아우구스투스가 매우 암시적이고 간접적으로만 언급되며, 그것도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된 카피톨리움의 신과 함께 등장할까 하는 의문을 덧붙였다.<sup>9)</sup>

분명 아우구스투스는 백년제를 통해 새 시대를 선포하려 하였다. 백년제 주관자는 <백년제 찬가>의 시인이 이에 성원과 지지를 보태어주길 기대하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시인-교육자’ 호라티우스가 <백년제 찬가>에서 주관자와 참여자, 양측 모두에게 가르침을 전하려 했음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합창의 순간, 참여한 시민뿐만 아니라 주관한 권력자를 포함하여 로마 전체는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을 노래하는 학생이었다.<sup>10)</sup>

## 2. 시인-교육자론

헤시오도스는 우리가 시인-교육자론이라고 부르는 문학론으로 『신들의 계보』를 시작하는바, 무사 여신 찬가다. “가슴이 노래로 가득 차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모르는” 위대한 제우스 따님들은 피에리아에서 “잔치 *galiai*”(65행)를 즐기며 살아간다. 이때 여신들은 “입에서 사랑스런 노래를 내보내시며 모든 불사신들의 법도와 현명한 처신을 노래로써 찬미하신다.” 무사 여신들의 시종들은 그 입에서 달콤한 말과 달콤한 목소

9) Gagé (1931/1972) pp. 17-18 이하.

10) 호라티우스의 <백년제 찬가>를 흔히 그렇게 해석되듯, 그리고 어쩌면 아우구스투스 본인도 그렇게 희망하였을지 것인바, 황제 업적 칭송으로 평가되더라도, 우리는 이런 평가가 시인-교육자의 독립성과 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바, 이는 영문과 명예교수 이종숙 선생님이 칭송도 일종의 교육적 성격을 가진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에 따른 것이다.

리가 흘러나오는데, 왕은 “현명한 *epicfrone*-” 지혜를 설파하고, 시인은 슬픔을 잊게 한다.<sup>11)</sup>

“무사 여신들의 사랑스러운 선물에도 능통한”<sup>12)</sup> 파로스의 아르킬로코스가 술자리를 통해 디튀람보스 합창을 이끌었다고 노래하였을 때, 단순한 유희를 넘어선 집단적 결속을 볼 수 있다.<sup>13)</sup> 또 희랍의 4대 체육경합에서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승리자를 맞이하는 국가적 축제도 승리자의 칭송을 계기로, 승리자와 그 가문을 아끼고 돌보는 신들에게 감사드리기 위한 축제가 되었다. 이때 합창대는 승리자의 찬가를 불렀고,<sup>14)</sup> 이후에도 승리 찬가는 전승과 기억을 위해 반복적으로 노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바, 이는 시민 교육적 목적을 배제하고 설명할 수 없다.<sup>15)</sup>

아테네의 국가적 행사로 확대된 박코스 축제의 비극도 아이스퀼로스 이래로 교육적 성격을 보여준다.<sup>16)</sup> 마라톤 참전용사는 새롭게 탄생한 세계질서에 들뜬 승자들에게 경외와 겸손을 설파한다.<sup>17)</sup> “훌륭한 생각들

11) 헤시오도스, 『신들의 계보』 58-103행. 천병희 역 참조.

12) 아르킬로코스 1 West. 여기서 “능통한 *epistameno*-”는 시인이 “수공업적 시적 기술”을 배워 익혔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Harder (1952) p. 383.

13) 아르킬로코스 단편 120 West “나는 포도주로 마음에 베풀 맞아 왕 디오닉소스의 아름다운 노래 디튀람보스를 이끌 줄 안다.”

14) 헤르만 프랭켈 『희랍초기의 문학과 철학』 2권 p. 568 이하. “그(시모니데스)는 희랍민족의 축제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남자들과 소년들을 위해 승리의 노래를 지었다.” 803쪽 이하에서 프랭켈은 시모니데스가 체육경기 우승자의 찬가에서 인간의 승리를 부차적으로 다루면서 이를 신들과 영웅들에게 바치는 찬가를 상세하게 다룬 사실을 적시하면서, 승리의 찬가가 신과 영웅의 찬가에서 변형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전통은 시모니데스의 뒤를 잇는 박클리데스와 핀다로스, 특히 후자에서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

15) 헤르만 프랭켈 『희랍초기의 문학과 철학』 2권 p. 795, 각주 7.

16) Jaeger (1954) p. 318. “아테네 민주국가에서 계속 바뀌는 정치 지도자의 헌법적 책임 이상으로 막중하고 강력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시인-지도자의 책임이었다.” Jaeger는 비극 시인의 이런 책임이 비극의 본원적인 것은 아니며, 아이스퀼로스의 비극을 통해 비로소 형성되었다고 본다.

로 우리 도시를 구할”<sup>18)</sup> 사람으로 아리스토파네스의 동시대인들은 시인들을 제일 먼저 고려하였고 결국 아이스퀼로스를 선택한다. 아이스퀼로스에게 아테네 시민들이 구하고자 한 것은 아이스퀼로스가 가진 “지혜와 조언 *dexiouth- kai; nouqesia*” 때문이었고,<sup>19)</sup> 시인은 이를 통해 시민들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시민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공동체에 기여할 생각을 해야 하는 교육자였다.<sup>20)</sup>

이런 의미에서 호메로스와 희랍 시인들은 희랍 세계의 교육 중심에 서 있었다.<sup>21)</sup> W. Jaeger의 이런 논의를 로마 세계로 확대할 때, 우리는 우선 시인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로마 세계의 증언에서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키케로는 시인 아르키아스의 로마 시민권 취득 사실을 옹호하는 연설을 행하였다. 이때 호메로스에 대한 세상의 평판을 거론하며 시인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청중에게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었다. “문학의 빛”이 아니었다면 훌륭한 선례들이 어둠 속에 누워 있을 것이고, 그랬다면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도리, 명예와 용기를 그가 달리 배울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sup>22)</sup> 연설로써 키케로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도 시인과 문학의 가르침을 통해 남에게 도움을 주고 타인을 보호하는 방법을 어린

17) Jaeger (1954) p. 311.

18) 아리스토파네스(2010), 「개구리」 1501행 이하. 이하 천병희 역 참조.

19) 아리스토파네스(2010), 「개구리」 1009행 이하 “지혜와 조언, 우리가 시민들을 더 나은 사람들로 만들기 때문이오. *dexiouthto- kai; nouqesia-*, *oṡti beltiau- te poioumen tou- ajqropou- ejn tai- poleisin.*” ‘지혜 *dexiouth-*’의 해석과 관련하여 Dover(1997) pp. 9-11을 보라.

20) 아리스토파네스(2010), 「개구리」 1054행 이하 “*toi- men gar paidaribisin eṡti didaskalo-, oṡti- frazei, toisin d jhbwsi poihtair*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자가 있다면, 어른들에게는 시인들이 있으니 말이오.” *oṡti- frazei*의 해석에 관해서는 Dover (1997)의 주석을 보라.

21) 플라톤(1997) 606e2~3 “*thn Ellada pepaideuken oujto- ol poiht-*……”. P. Murray (1997) p. 19 각주 45.

22) 키케로(2015) p. 241 참조.

시절부터 배워 익힌 덕분이라고 회고한다.

호라티우스의 『시학』에 따르면 “시인들은 이롭게 하거나 즐겁게 하거나 유쾌하면서도 인생 도움이 되는 걸” 노래한다고 주장한다.<sup>23)</sup> 또 『서간시』 2권에서도 “시인은 선행을 전하여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 좋은 모범을 들려주며 슬프고 아플 때 위로를 건네줍니다.”<sup>24)</sup>

호라티우스는 시인-교육자론의 단초를 그의 서정시에서도 보여주었다. 흔히 로마 송가라고 불리는 연작시(III 1~6)는 이렇게 시작된다(III 1, 2-4행).

전에 없던  
노래를 나는 무사여신들의 사제로  
소년소녀들에게 노래하노라.  
carmina non prius  
audita Musarum sacerdos  
virginibus puerisque canto.

‘전에 없던 노래를 노래하겠노라’는 단순히 예술가적 자부심의 발로는 아니다. 로마의 소년소녀들에게 진지한 충고 내지 경고의 서정시를 들려주겠다는 호라티우스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시인은 그의 노래를 듣고 부를 청년들에게 즐겁게 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바람을 가졌다.<sup>25)</sup>

시인-교육자 호라티우스의 학생은 새로운 시대의 소년소녀만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권력자에게도 시인은 “지혜”를 가르치길 원했다. 로마 송가 IV가 여섯 편의 로마 송가들 가운데 가장 긴 작품이면

23) Horatius (2001), *AP* 333-334. “Aut prodesse volunt aut delectare poetae aut simul et iucunda et idonea dicere vitae.”

24) Horatius (2001), *Epistulae* II, i 130. “recte facta refert, orientia tempora notis instruit exemplis, inopem solatur et aegrum.”

25) Kiessling-Heinze (1917) p. 265.



서, 나아가 호라티우스 서정시들 가운데 가장 긴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로마 송가 여섯 편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점은 로마 송가 IV의 중요성을 말해준다.<sup>26)</sup> 80행에 이르는 로마 송가 IV의 중심 시행은 이렇다(37-42행).

당신들은 높은 카이사르를, 전쟁에  
지친 병사들을 마을마다 정착시키고  
병사들의 노고를 끝마치려는 그를  
피에리아 동굴에서 회복시키소서!

소박함의 지혜를 주시고 주시면서  
기뻐하소서, 여신들이여!

vos Caesarem altum, militia simul  
fessas cohortis addidit oppidis,  
finire quaerentem labores  
Pierio recreatis antro.

vos lene consilium et datis et dato  
gaudetis almae.

여기서 시인은 무사 여신들을 불러,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게 “소박함의 지혜 *lene consilium*”를 가르쳐 주십사 간청한다. 이런 간청의 배경은 시의 후반에 언급되는데, “지혜 없는 힘은 제 무게로 쓰러진다 *vis consili expers mole ruit sua*”(65행)는 신적 질서에 대한 확신이며, 신들은 “절제하는 권력을 위엄으로 이끈다 *vim temperatam di quoque provehunt in maius*”(66행)는 경건한 믿음이다. 여기서 권력자 아우구스투스에게 절제와 소박함의 지혜를 가르치는 피에리아 무사 여신들의 모습은 시인 자

26) Fraenkel (1957) p. 273.

신의 모습이기도 하다.<sup>27)</sup>

그런데 희랍 문학과 비슷한 정도로 시인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이런 의식과 자의식이 로마 사회에서도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로마 문학사에서 호라티우스가 <백년제 찬가> 공연에서 보여준 것만큼 로마 사회의 공적 영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례는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sup>28)</sup> 호라티우스의 <백년제 찬가>는 유일무이한 예다. 기원전 1세기에 들어, 시인-교육자의 활동 무대가 축제와 주연에서 책과 출판으로 바뀐 것이 아닐까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가 공적 행사에서 공연된 기록은 없다. 세네카의 비극은 공연보다 독서를 염두에 두고 쓰인 작품들로 보인다.<sup>29)</sup> 이런 의미에서 시인의 역할과 위상에 있어, <백년제 찬가>의 공적 공연을 수락한 호라티우스는 백년제의 아우구스투스 만큼이나 “희랍의 방식 *Achivo ritu*”<sup>30)</sup>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백년제

애초의 백년제는 티베리스 강변의 마르스 연병장에서 타렌툼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3일의 야간 희생제로서, 저승 왕 Dis와 저승

---

27) Kiessling-Heinze (1917) p. 291 이하는 ‘소박함의 지혜’를 주석하면서 이것이 우선 행복한 적들에 대한 온화한 관용을 의미하며, 65행에서 “절제와 자제 *Mäßigung und Selbstbeherrschung*”의 덕으로 심화된다고 설명한다.

28) Fraenkel (1957) p. 379 이하는 리비우스 안드로니쿠스가 기원전 207년 공적 종교 행사에서 노래된 행진가를 지었다는 리비우스의 기록을 언급한다. 이런 기록을 받아들여도 호라티우스의 참여는 로마 역사상 두 번째에 지나지 않는다. Günther (2013) p. 432에 따르면, “문학은 로마에서 공적으로, 기원전 5세기 아테네 혹은 헬레니즘 시대의 왕정에서 가졌던 역할을 결코 가진 적이 없다.”

29) Conte (1994) p. 418.

30) CIL 06, 32323, 91행.

여왕 프로세르피나에게 바치는 제사였다. 희생제물은 검은 짐승이었다.<sup>31)</sup> 아우구스투스는 이런 백년제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다.

기원전 17년의 백년제는 아우구스투스가 주도하여 그를 포함하여 15인 위원회가 주관한 국가 축제였다.<sup>32)</sup> 백년제 거행 이후에 15인 위원회와 원로원은 비(碑)를 세워 축제의 준비와 진행, 관련 입법과 포고 등의 기록을 남겼다. 19세기 말 비의 발굴로 기원후 5세기 Zosimos의 기록에도 신빙성에 더해졌고, 우리는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백년제가 거행된 나흘을 재구성할 수 있다.

비(碑)에 따르면, 백년제는 기원전 17년 5월 31일~6월 3일까지 밤낮으로 나뉘어 나흘 동안 거행되었는데 5월 31일 밤에 지낸 첫 번째 제사로 시작하여 6월 3일 낮에 올리는 마지막 제사로 끝났다. 오로지 야간 제사로만 구성되었던 앞서의 백년제와 달리 주간 제사가 추가되었고, 전체적으로 백년제가 야간 제사에서 시작하여 주간 제사로 끝나도록 구성하였다. 마르스 연병장과 카피톨리움과 팔라티움에서 거행되었다. 세 번의 밤에는 마르스 연병장에서 밤의 신들에게 제사가 모셔졌는데, 이때 저승왕 Dis와 저승 여왕 프로세르피나를 운명의 여신들, 해산의 여신들, 대지의 여신이 대신하였다. 첫 번째 낮과 두 번째 낮에는 낮의 신들인 유피테르와 유노에게 카피톨리움에서, 세 번째 낮에는 팔라티움에서 낮의 신들인 아폴로와 디아나에게 드리는 제사가 거행되었다. 6월 3일 낮의 마지막 제사 이후 소년소녀 각 27명으로 구성된 합창대는 팔라티움과 카피톨리움에서 호라티우스가 지은 <백년제 찬가>를 노래하였다.

비(碑)의 기록(acta)을 날짜별로 살펴보면, 5월 31일 밤에 아우구스투스는 티베리스 강변의 마르스 연병장에서 ‘희랍의 제례에 따라 *Achivori*’(acta 91행) 운명의 여신들에게 암양 아홉 마리와 암염소 아홉 마리

31) Nilsson (1920) p. 1705 이하.

32) 기원후 204년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의 백년제 이후에도 몇 번의 다른 계산법에 따른 백년제가 거행된다. 기독교 황제 이후 백년제는 거행되지 않는다.

를 바쳤고 운명의 여신들에게 기도를 올렸다. 아우구스투스는 호의와 자비로써 제물을 받은 여신들이 로마 인민의 “지배권과 존엄 imperium maiestasque”(acta 93행)을 전쟁과 평화에서 강화시켜 주고 로마 인민과 로마 군대에게 “승리와 강건함 victoria valetudo”(acta 95행)을 허락하길 기원하였다. 희생제 이후에 연극 공연이 있었고, 15인 위원회가 선발한 10명의 “귀부인들 matronae”은 유노와 디아나 여신을 모시고 “sellisternia 만찬”을 가졌다(acta 100-102행).

6월 1일 낮에 아우구스투스와 아그리파는 각각 황소를 카피톨리움 유피테르에게 바쳤다. 기원의 내용은 전날 밤과 같았다. 티베리스 강변의 마르스 연병장에 세워진 목조 극장에서 연극 공연이 있었다. 이어 전날 밤과 같은 방식으로 “mater familiae 가모(家母)”(acta 109행)들은 “sellisternia 만찬”을 가졌다. “훌륭한 관례, 그리하여 환영받는 관례에 따라 공적 향응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모범들을 가지고”(acta 111행) 전날 시작되었다가 중단되었던 연극 공연이 이어졌고, 이를 통해 가모들의 슬픔을 달래기를 15인 위원회는 바랐다.

6월 1일 밤에 아우구스투스는 해산의 여신들(Ilithyiae)에게 각각 9개씩의 제사용 과자(liba, popona, pthoes)를 바쳤다. 앞서와 같은 내용을 기원을 올렸다.

6월 2일 낮에 “희랍의 제례에 따라”(acta 119행) 아그리파는 카피톨리움에서 여왕 유노(Iuno Regina)에게 암소를 바쳤고 앞서와 같은 기원을 올렸다. “110명의 갓 결혼한 가모(家母)들 matres familias nuptae”(acta 123행)이 초대되어 아그리파의 기도에 함께하였다. 기원의 내용은 앞서와 같았다. 6월 1일 낮의 연극 공연이 이어졌다.

6월 2일 밤에 “희랍의 제례에 따라”(acta 134행) 아우구스투스는 티베리스 강변에서 새끼를 밴 암돼지를 “대지의 여신 Terra Mater”(acta 136행)에게 바쳤다. 앞서와 같은 내용의 기원을 올렸다. 귀부인들은 “sellisternia 만찬”(acta 138행)을 가졌다.

6월 3일 낮에 아우구스투스와 아그리파는 팔라티움에서 아폴로와 디아나 여신에게 각각 9개씩의 제사용 과자(liba, popona, pthoes)를 바쳤다. 이어 아폴로와 디아나 여신에게 각각 앞서와 같은 내용의 기원을 올렸다.

전체적으로 백년제 기념비의 기록을 살펴본 것에 따르면 백년제의 중심은 생산과 출생을 지배하는 대지의 신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년제 행사의 첫 날에 있었던 “sellisternium 만찬”에 모셔진 여신들은 유노와 디아나였는바, 이 여신들이 생산과 출생을 지배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6월 1일 주간 희생제에서 거행된 연극 공연의 목적이 “부인들의 슬픔을 줄이는 것 *minui luctus matronarum*”(112행)이었다는 것은 출산과 생산과 관련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또 6월 1일 야간 희생제에서 해산의 여신들(*Ilithyiae*)에게 제사용 과자를 바쳤는바, 이는 6월 3일 낮에 아폴로와 디아나에게 바쳤던 제물과 동일하다.<sup>33)</sup>

## 4. 백년제 찬가

### 4.1 백년제 찬가 공연

<백년제 찬가> 기록은 6월 3일 낮의 기록 바로 다음이다. “백년제 희생제가 마무리되자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아이들 가운데 선발된 27명의 소년들과 같은 수의 소녀들이 노래를 불렀다. 똑같이 다시 한 번 카피톨리움에서. 찬가는 퀸투스 호라티우스 플라쿠스가 지었다. *Sacrificioque perfecto pueri [X]XVII quibus denuntiatum erat patrimi et matrimi et puellae totidem carmen cecinerunt. Eo[dem]que modo in Capitolio. Carmen composuit Q(uintus) Hor[at]ius Flaccus.*”<sup>34)</sup>

33) Gagé (1931/1972) p. 28.

34) CIL 06, 32323, 147-149행.

<백년제 찬가>를 지은 시인은 호라티우스다. 아우구스투스는 국가 행사를 장식할 시인으로 그를 지명했다. 베르길리우스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기원전 19년). 아우구스투스는 축제만이 아니라 찬가의 준비에도 우리 생각 이상으로 깊이 개입하였을지도 모른다.<sup>35)</sup>

<백년제 찬가>는 신들을 칭송하며 신들에게 바치는 찬가다. 이는 로마 역사상 유일무이한 종교적 찬가로서, 국가적 종교 행사에서 실제로 공연된 기록을 남긴 유일한 사례다.

<백년제 찬가>는 합창시였다. 선발된 소년소녀 54명으로 구성된 합창대는 팔라티움에서 첫 공연을 하였고 “똑같이 다시 한 번 Eo[dem]que modo” 카피톨리움에서 두 번째 공연을 거행하였다.

몸젠은 <백년제 찬가>를 행진가로 생각하였다.<sup>36)</sup> 백년제 비의 발굴에 참여하고 비를 최초로 편집한 몸젠(1891)은 비의 기록을 토대로 찬가 구성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sup>37)</sup> 찬가는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는바, 카피톨리움 부분(37-52행)과 앞뒤의 팔라티움 부분(1-36행과 53-76행)이다.<sup>38)</sup> “흰 소 제물”(49행)은 백년제 비에 따르면 첫 날과 둘째 날의 주간에 카피톨리움에서 하늘 신들에게 바친 제물이었다. 여기서 몸젠은 찬가의 세 부분이 장소 변경을 반영한다는 놀라운 가설을 제시한다. 단순히 찬가를 읽기만 하는 독자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을 만한 것이지만 당시

---

35) Fowler (1910) p. 148. 아우구스투스가 <백년제 찬가>에 들어갈 내용을 산문으로 적어 건넸다고 Fowler는 상상한다. 그는 시인이 이를 찬가에 녹여 넣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산문투를 벗어나지 못한 채 남아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Fraenkel (1957) p. 318은 아우구스투스가 리비우스 안드로니쿠스 등의 전례에 따라 찬가를 지을 것을 주문하였을 가능성을 검토한다.

36) Mommsen (1891/1976) p. 358 “Ohne Frage ist das Gedicht ein Prozessionslied gewesen.” Fowler (1910) p. 146은 몸젠의 행진가 가설을 부정하고 <백년제 찬가>의 공연장소가 카피톨리움과 팔라티움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장소였다는 가설을 전제로 행진이 아닌 방식으로 공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37) Fraenkel (1957) p. 366 이하.

38) Mommsen (1891/1976) p. 357 이하.

청중은 분명히 알 수 있었던바, 팔라티움에서 시작하여 로마 광장과 신성 대로를 지나 카피톨리움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다시 카피톨리움에서 팔라티움으로 이동하면서 합창대가 찬가를 노래하였다는 것이다.

몸젠의 가설에 비판적인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Warde Fowler (1910)도 행진가였을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매우 설득력 있는 흥미로운 제안을 하였다.<sup>39)</sup> 그는 팔라티움 아폴로 신전이 위치했다고 학자들이 보는 팔라티움의 북동쪽 언덕을 찬가의 공연장소로 지목했다.<sup>40)</sup> 오비디우스는 『슬픔의 노래』에서 가파른 계단(celsi gradus)을 통해 그곳에 닿았다고 기록했다.<sup>41)</sup> 팔라티움 아폴로 신전은 아폴로와 디아나와 라토나 등 세 개의 신상을 모셨고, 지붕에는 사륜마차를 끄는 태양의 신이 서 있으며, 신전 문에는 켈트족의 공격을 받는 델포이 신전, 니오베 아들의 죽음의 장식되어 있었다.<sup>42)</sup> 이곳의 맞은편에 카피톨리움과 유피테르 신전, 로마 광장이 보였을 것이고 멀리 카피톨리움의 왼쪽에 마르스 광장의 타렌툼이 보였을 것이다. 합창대는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몸을 돌려 방향을 트는 것만으로, 몸젠이 언급한 카피톨리움 부분과 팔라티움 부분을 각각 노래했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한편 <백년제 찬가>는 ‘백년제’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며 비(碑)의 기록을 토대로도 이것이 자연스럽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희생제 거행, 아우구스투스 등의 기원, 귀부인들의 만찬과 연극 공연이 희생제의 기본 순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프랭켈은 “희생제가 마무리되자 sacrificio perfecto”를 ‘6월 3일 주간 희생제를 끝으로 백년제 전체가 마무리되자’로

39) Fraenkel (1957) p. 378 각주 2에 따르면 몸젠의 가설은 이미 1892년 Vahlen에 의해 부정되었고 몸젠의 가설을 되살리려는 1894년 Wissowa의 시도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Kiessling-Heinze (1917) p. 485도 몸젠의 가설을 부정한다.

40) Fowler (1910) p. 150.

41) 오비디우스 『슬픔의 노래 Tristia』 III 1, 59행 이하.

42) Richardson (1992) p. 14, ‘Apollo Palatinus’ 항목 참조.

이해하였다. 이 경우 <백년제 찬가>는 백년제 행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백년제와 분리된 별도의 행사가 된다.<sup>43)</sup> 이는 <백년제 찬가>가 백년제 본 행사 밖에서 전체 축제를 돌아보며 의미를 되새기는 “고대 종교 문학에서 유래가 없는” 기획였다는 “혁명적” 가설이다. 아무튼 이런 훌륭한 분리 공연의 가설은, 프랭켈 본인의 주장인바, 호라티우스 서정시의 본질이라고 할 현실과의 “완전한 독립”과 “자족성”을 만족시킨다.

우리는 그의 분리 공연 가설을 따르고자 하는바, 다만 우리는 <백년제 찬가>를 오늘의 백년제가 아니라 미래의 백년제를 기원하는 합창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프랭켈과 달리 <백년제 찬가>를 오늘의 백년제를 되새기는 찬가가 아니라, 다음 백년과 미래의 백년제를 희망하는 찬가로 보고자 한다.<sup>44)</sup> <백년제 찬가>의 공연은 오늘 로마인들의 처신이 미래의 로마인들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숙고하는 시간이었다. 시인의 시선은 내일을 향해 있었다. 시인은 합창대는 물론 공연을 지켜보는 모두로 하여금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의 자신을 돌아보도록 가르치는 교육자였다.

#### 4.2. 백년제 찬가 분석

이제 우리는 호라티우스가 단순히 국가 축제에 동원된 것이 아니라, 시인-교육자로 호라티우스가 <백년제 찬가>를 통해 로마의 미래를 위해 돌보아야 할 가치와 이를 위한 시민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그때 합창대의 소년소녀들에게, 미래를 짊어질 세대에게 ‘지혜와 조언’을 전하고자 한 시인은 백년제 주관자가 원했던 것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백년제를 통해 악티움 해전 이후 로마를 통치하던 아우구스투스는 지난 기간의 성공적 통치와 위대한 치적을 합당하게

43) Fraenkel (1957) p. 378 이하.

44) Gagé (1931/1972) p. 36.



칭송할 시인을 선택하였을 것이지만, 시인은 지금의 젊은이들이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누리게 될 미래의 평화에 주목한다. 그에게 지금은 평화를 위한 시작이고 출발일 뿐이다.

<백년제 찬가>는 19연 76행의 장시(長詩)다. 균등 분할의 원칙에 따른 프랭켈의 견해를 보면 전체 단락 구분은 전반 9연, 후반 9연 그리고 종결부 1연으로 구성된다.<sup>45)</sup>

<백년제 찬가>의 분석을 종결부로부터 시작하면, “단정한 소년들과 소녀들을”(6행) 가려 뽑아 구성된 합창대는 종결부에 이르러 그들에게 맡겨진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백년제 찬가>의 종결부는 다음과 같다(73-76행).

이런 말씀을 유피테르와 신들께서 모두  
아시리라는 분명한 희망을 안고서 저는,  
포에보스와 디아나 찬가의 합창을 배운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haec Iovem sentire deosque cunctos  
spem bonam certamque domum reporto,  
doctus et Phoebi chorus et Dianae  
dicere laudes.

백년제에서 모셔진 모든 신성이 연이어 언급되면서 <백년제 찬가>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았다가 마지막에야 밝혀진바, 합창대는 “포에보스와 디아나 찬가”를 부른 것이다. 만약 호라티우스에게 아우구스투스가 정확하게 특정하여 맡긴 일이, 마지막에 시인이 언명할 때까지 불분명하기만 했던 “포에보스와 디아나 찬가”였다면,<sup>46)</sup> 어찌면 과제에 충실하지 못한

45) Fraenkel (1957) p. 370 이하. 그는 각각 다시 삼분하여 A I (1-12행), A II (13-24행), A III (25-36행), B I (37-48행), B II (49-60행), B II I(61-72행)으로 나눈다.

46) 아우구스투스에게 백년제 개최의 근거를 제공한 시빌라 예언서에 따르면 “소년들

것처럼 비칠지도 모른다고 염려한 시인은 ‘그래도 포에보스와 디아나 찬가’였다고 강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카피톨리움 신성 혹은 전통의 신성이 물러나고 팔라티움 신성 혹은 새로운 신성이 전면에 등장한다는 Warde Fowler의 주장과 달리, 종결부에서 드러나듯, 카피톨리움 신성도 나란히 합창을 듣고 있다. 아니 궁극적으로 그것은 나머지 신들과 세계를 통치하는 카피톨리움 신성을 향한 것일지 모른다.<sup>47)</sup> ‘세상 권력의 원천’인<sup>48)</sup> 유피테르와 모든 신들에게 올린 “이런 말씀”을 유피테르와 모든 신들이 “알았다 *sentire*”고 합창대는 확신한다. 훗날 시인이 백년제 공연을 회상하며 지은 시에서, 합창대에 참가하였던 소녀도 그날의 찬가가 “신들에게 달가운 노래”<sup>49)</sup>였다고 증언한다.

시인이 합창대에게 ‘가르치고’ 합창대가 “배운” 말이 신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었으리라는 “분명한 희망”을 안고 해산하는 합창대의 소임은 분명 이것이었다. 그리고 시인의 손을 따라<sup>50)</sup> 합창대의 입에서 들려오는 소년소녀의 합창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세상의 권력자들을 포함하여 모두가 이를 들었다. 백년제 비(碑)는 이때 아우구스투스를 비롯한 15인 위원회가 “거기에 있었다 *adfuerunt*”<sup>51)</sup>고 기록하였다.

---

과 소녀들이 라티움의 파이안을 불러 불멸하는 신들의 신전을 채우게 하라”라고 적혀 있었다. Thomas (2011) pp. 227-228, Appendix 3을 보라.

47) Gagé (1931/1972) p. 24는 아폴로(디아나를 포함하여)를 “전달자 *Vermittler*”로 해석하고자 한다. Gagé의 생각에 따르면, 합창대가 전면에 밝게 부각된 아폴로와 디아나에게 기원을 노래하면, 아폴로와 디아나는 뒤에 멀리 서 있는 유피테르에게 전달한다.

48) 호라티우스, 『서정시』 III 1, 5-8행.

49) 호라티우스, 『서정시』 IV 6, 42행.

50) 호라티우스는 백년제의 공연 장면을 그의 시에 다시 기록하였다. 호라티우스, 『서정시』 IV 6, 30행 이하. “처녀들아 …소녀들아…레스보스 시인들의 운율에 따라 현을 뜯는 내 엄지손가락을 따르라.”

51) CIL 06, 32323, 150행.

첫 단락(1-12행)은 아폴로와 디아나, 해와 달, “빛나는 하늘의 자랑”(2행)로 시작하는바,<sup>52)</sup> 백년제 비의 기록처럼 마지막 날 주간(晝間)에 <백년제 찬가>를 소년소녀들이 부르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아폴로와 디아나는 지금까지 늘 공경 받는(culti, 3행) 신들이었고, 지금 시작되는 다음 세기 동안에도 늘 공경 받을(colendi, 2행) 신들이다. 팔라티움 아폴로 신전의 지붕에 태양신 헬리오스의 4두마차가 장식되어 있는바, 팔라티움 아폴로와 태양신은 분명히 구분되었다. 또 “생명의 태양”(9행)이라고 불린 태양신 아폴로는 팔라티움 아폴로에 국한되지 않는다. Fraenkel은 시인 호라티우스는 좀 더 크고 위대한 것에서 출발하고자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sup>53)</sup> 지금 합창대의 머리 위를 지나고 있는 태양이 상징하는 “재탄생과 부활”(alius et idem nasceris, 9-10행)은 찬가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백년제의 중심이다.<sup>54)</sup>

두 번째 단락(13-24행)의 중심은 디아나 여신과 출산이다. 호라티우스는 디아나를 백년제의 두 번째 야간 제사에서 모셔진 해산의 여신과 동일시한다. 선대의 죄로 벌어진 전쟁과 전쟁 함성을 들어야 했던, 내전으로 선대가 다투는 동안 얼마 태어나지 않은, 그래서 몇 안 되는 후손들<sup>55)</sup>은 생산과 출산을 담당하는 여신 앞에서 자손의 번영을 노래한다. 여기서 시인이 아우구스투스 결혼법을 엄두에 두었다는 해석을 배제할 수는 없다. 아우구스투스는 백년제 직전인 기원전 18년에 ‘결혼에 관한 율리

52) 이에 반해 Kiessling-Heinze (1917)은 “빛나는 하늘의 자랑”이 오로지 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Fraenkel (1957) p. 372 이하는 앞서 포이부스와 디아나를 동시에 부르고 있고, 또 아폴로가 백년제 축제의 주인공임을 들어 “빛나는 하늘의 자랑”을 달과 해로 해석한다.

53) Fraenkel (1957) p. 373.

54) Putnam (2010) p. 235. 부활과 재생이라는 핵심 주제는 백년제 기념비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아폴로와 디아나에게 바쳐진 제물이 해산의 여신들(Lithyiae)에게 바쳐진 제물과 동일함에 주목하게 만든다.

55) 호라티우스, 『서정시』 I 2, 21-24행.

우스 법 *lex Iulia de maritandis ordinibus*’을 제정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였고,<sup>56)</sup> “원로원 의결 *patrum decreta*”(18-19행)로 제정된 다른 결혼법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단락의 끝에서 합창대는 110년 뒤에 다시 개최될 백년제를 떠올리며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으로 “복적대기”(24행)를 기원한다. 전쟁이 끝나고 질서가 회복되고 모두에게 평화와 풍요가 뒤따르면, 자손이 태어나고 사람들이 불어나는 것은 “인간 사회 생활의 근간”<sup>57)</sup>을 지배하는 법칙이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와 풍요는 이미 “결혼법”(lege marita, 20행) 그 자체다.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은 평화와 풍요의 결과인바, 지금보다 크게 사람들이 운집할 백년제의 ‘3일 밤과 3일 낮’(23행)을 떠올리며 마무리된다.

세 번째 단락(25-36행)은 미래의 약속과 운명을 노래다. 다음 백년제까지 변함없이 이어질 번영과 질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이번 백년제의 의의이기 때문이다. 평화와 풍요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시작이다. 이번 백년제는 전통에 따라 야간 희생제였고 “운명의 여신들 *Parcae*”(25행)에게 올리는 제사였고 이를 비는 “*Moerae*”로 기록하였다. 일단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여신들이 “유복한 미래 *bona fata*”(27-28행)를 보태어 주길 기원한다. 마지막 야간 희생제를 받은 여신, “대지의 여신 *Ceres*”(30행)는 풍년을 가져다 줄 것이다. 세 번째 단락은 부활의 신 아폴로와 출생의 신 디아나 여신에게 드리는 기원으로 마무리된다.

몸젠 이래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받아들이는바, 37행에서 찬가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한다. 첫 번째 부분은 로마 번영과 지속의 물질적 토대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로마 번영과 지속의 도덕적 정치적 요소를 언급한다.<sup>58)</sup>

네 번째 단락(37-48행)은 미래를 약속했던 과거로 돌아가 신들에게 약

56) Kiessling-Heinze (1917) p. 488 이하.

57) Fraenkel (1957) p. 374.

58) Fraenkel (1957) p. 375.

속의 이행을 요청한다. 트로이아의 멸망과 방향, 아이네아스의 건국과 트로이아의 부활로 이어지는 건국 신화는, 트로이아의 후손들과 맺었던 신들의 약속을 상기시킨다. 『아이네이스』 1권 257행 이하의 유피테르 연설을 떠올린다면 베르길리우스의 영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트로이아의 유민들은 신들과 약속한 모든 것을 이행했고 이제 신들이 약속을 이행할 때가 되었다.

다섯 번째 단락(49-60행)은 “양키세스와 베누스 혈통의 고귀한 자”(50행)에 이르러 드디어 신들의 약속이 이루려는 조심을 감지한다. 앞서 시인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고 그저 “신들”(45행과 46행)이라고만 하였으나, 여기서 “신들”의 정체가 드러난다. ‘흰 소를 제물로 받은 신들’(49행)은, 백년제 제물로만 판단하건데, 첫 번째 주간 희생제와 두 번째 주간 희생제를 받은 유피테르와 유노여신이다. 또 카피톨리움 신들의 도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 물론 누구인지 모를 사람은 없겠지만 시인은 의미심장하게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 오만한 적을 벌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푼다면, ‘신의와 평화와 염치와 덕’(57-58행)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redire audet, 58행). 풍요(Copia, 60행)는 그 결과이며 장차 “바른 품행”(45행)의 청년은 노년의 “평화”(46행)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Fowler (1910) 이래로 주장된 유피테르의 퇴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다섯 번째 단락(61-72행)은 도입부에서 언급된 아폴로와 디아나 여신의 호의로 다시 돌아간다. 첫 단락의 아폴로와 디아나에서 출발하여 아폴로와 디아나로 귀결되는 환원구조(Ringkomposition)다.<sup>59)</sup> 하지만 이르고 아폴로와 디아나가 유피테르보다 강조됨을 논증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싶다. 아폴로로 상징되는 부활과 재탄생, 회복과 치유를 다시 한 번 강조하려는 의지로 보일 뿐이다. 아폴로와 디아나는 팔라티움

59) Günther (2013) p. 437.

과 아벤티누스에 자리를 잡고, 라티움과 알기두스 언덕을 다스리고, 제 관들의 제사를 받고, 소년소녀들의 찬가를 듣는다. 아폴로는 “아홉 무사 여신들”(62행)과 함께 음악과 의술의 신성으로 등장한다. 합창대는 “지친 사지에 힘을”(63-64행) 불어넣어주기를 기원한다. 그리하여 백년제가 “다음 백년제”(67행)로 이어지고, 영원토록 그렇게 이어가길 회복과 치유를 기원하는 것이다.

## 5.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호라티우스가 <백년제 찬가>를 통해 합창대에 참가한 소년소녀들에게, 합창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특히 권력자들에게 ‘지혜와 조언’을 전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아우구스투스의 성공적인 치세를 환영하고 칭송하고 선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긍정적인 어휘들은 — “위대한 로마”, “시민들의 번창”, “비옥한 대지”, “생명을 살리는 비”, “신의와 평화와 명예”, “염치”, “지복한 풍요”, “로마와 라티움의 부” — 미래에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것들이었다. 이제 그런 희망을 품어도 좋을 만큼 좋은 통치자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희망이라면 아우구스투스를 그런 점에서 아우구스투스를 높이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겨우 시작이었다. “로물루스의 자손”에게 유피테르가 약속한 것은, 시인이 조언하는바, 소년의 “바른 품행”이 노년의 평화로운 “휴식”을 가져오리라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자 료】

- 아리스토파네스(2010), 「개구리」, 『아리스토파네스 희극 전집 2』, 천병희 역, 고양: 숲, pp. 167-264.
- 키케로(2015), 마르쿠스, 「아르키아스 변호연설」, 『설득의 정치』, 김남우 외 옮김, 서울: 민음사, pp. 229-254.
- 플라톤(1997), 『국가』, 박종현 역, 서울: 서광사.
- 헤시오도스(2004), 『신통기』, 천병희 역, 서울: 한길사.
- 호라티우스(2016), 『소박함의 지혜』, 김남우 역, 서울: 민음사.
- Horatius (2001), *Q. Horatius Flaccus*, ed. D. R. Shackleton Bailey, Teubner: Berlin.
- Varro (1951), M. Terentius, *de lingua Latina*, ed. by J. Henderson, Harvard Univ. Press.

### 【논 저】

- 김덕수(2013), 아우구스투스의 원수정 : 로마공화정에서 제정으로, 길: 서울.
- 김활란(2016), 「세기제의 성격과 아우구스투스의 종교 정책」, 『서양고전학연구』 55, pp. 211-238.
- 최혜영(2015), 「아폴로 팔라티움 신전과 옥타아누스의 아폴로 숭배」, 『역사교육논집』 54, pp. 353-381.
- Ableitinger (1972), D., “Die Aeneassage im Carmen Saeculare des Horaz”, *WS* 6, pp. 33-44.
- Arnold (1986), B., “A Reevaluation of the Artistry of Horace’s Carmen Saeculare”, C. Deroux(hrsg.), *Studies in Latin Literature and Roman History IV*, Bruxelles, pp. 475-491.
- Barker (1996), D., “The Golden Age Is Proclaimed? The Carmen Saeculare and the Renascence of the Golden Race”, *CQ* 46, pp. 434-446.
- Boyce (1941), A. A., “Processions in the Acta Ludorum Saecularium”, *TPAPh* 72, pp. 36-48.

- Conte (1994), G. B., *Latin Literature, a history*, Johns Hopkins univ. press.
- Dover (1997), K. *Aristophanes, Frogs*, Oxford.
- Fowler (1910), W. W., “The Carmen Saeculare of Horace and Its Performance, June 3 B. C. 17”, *CQ* 4, pp. 145-155.
- Fraenkel (1957), Ed., *Horace*, Oxford.
- Fränkel (1993), H., *Dichtung und Philosophie des frühen Griechentums*, München (=헤르만 프랭켈, 『초기 희랍의 문학과 철학』 I과 II, 아카넷, 2011.).
- Frank (1921), T., “The carmen saeculare of Horace”, *AJPH* 42, pp. 324-329.
- Gagé (1931/1972), J., “Beobachtungen zum carmen saeculare des Horaz”, 1931, übersetzt von H. Froesch, *Wege zu Horaz*, Darmstadt, pp. 14-36.
- Galinski (1967), G. K., “Sol and the Carmen Saeculare”, *Latomus* 26, pp. 619-633.
- Günther (2103), H.-C., “the carmen saeculare”, Günther, H.-C.(ed.) *Brill’s Companion to Horace*, Leiden, pp. 431-443.
- Harder (1952), R. “Zwei Zeilen von Archilochos”, *Hermes* 80, pp. 381-384.
- Jaeger (1954), W., *Paideia I-II*, Berlin.
- Landmann (1961), M. M., “Die Aufteilung der Chöre im Carmen Saeculare”, *Aparchai*, Gedenkschr. Lohde, Tübingen, pp. 173-179.
- Kiessling, A.-Heinze (1917), R., *Q. Horatius Flaccus, Oden und Epoden*, Berlin.
- Murray (1997), P., *Plato on poetry*, Cambridge Univ. press.
- Merkelbach (1961), R., “Aeneas in Cumae”, *MH* 18, pp. 83-99.
- Mommsen (1891/1976), Th., “Die Akten zu dem Säkulargedicht des Horaz”(1891.12.9.), *Reden und Aufsätze*, Hildesheim, 1976.
- Mommsen (1902), Th., *Römische Geschichte, Bis zur Schlacht von Pydna*, Bd. 1., Leipzig.
- Nilsson (1920), N. “Saeculares ludi”, *RE*, 1 A2, pp. 1696-1720.
- Putnam (2010), M., “The Carmen Saeculare”, G. Davis(ed.) *A Companion to Horace*, Blackwell, pp. 231-249.
- Rahn (1970), H., “Zum Carmen Saeculare des Horaz”, *Gymnasium* 77, pp. 467-479.
- Rantala (2017), J., *The Ludi Saeculares of Septimius Severus: The Ideologies of a New Roman Empire*, Routledge.



- Richardson (1992), L. jr., *A new topographical dictionary of ancient Rom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 Savage (1968), J. J. H., “The Aurea Dicta of Augustus and the Poets”, *TPAPh* 99, pp. 401-417.
- Schmidt (1985), L., “Horaz’ Säkulargedicht – ein Prozessiongedicht”, *AU* 28/4, pp. 42-53.
- Taylor (1934), L. R., “New Light on the History of the Secular Games”, *AJPH* 55, pp. 101-120.
- Thomas (2012), R. F., *Horace, odes book IV and carmen saeculare*, Cambridge univ. press.
- Williams (1962), G., “Poetry in the Moral Climate of Augustan Rome”,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52, pp. 28-46.
- Zanker (2010), A. T., “Late Horatian lyric and the virgilian golden age”, *AJPh* 131, pp. 495-516.

원고 접수일: 2018년 7월 26일

심사 완료일: 2018년 7월 31일

게재 확정일: 2018년 8월 1일

ABSTRACT

---

Poet and Paideia:  
Horace's *Carmen Saeculare*

KIM, Jin Sik\*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ocial role of the Roman poets of the 1st century BC through the Augustan poet Horace's *Carmen Saeculare*. What Werner Jaeger once demonstrated in his famous work *Paideia* the tradition of the poet-educator, is how the Greek poet appeared in public in the festivals as an educator. If we are looking for a Greek-like festival in Rome, we should consider the festival *Ludi Saeculares* hosted by Augustus in 17 BC. At this time, the poet Horace composed the song *Carmen Saeculare*, a choir performance which was the last event of the festival. At the same time, *Carmen Saeculare* has been interpreted generally as a song of praise to advertise the prosperous reign of Augustus, during which the role of the poet was not greatly highlighted. We assert that Horace, unconcerned about the will of his employer, did not compliment his employer, and positioned himself as an educator. In the course of the choral representation of *Carmen Saeculare*, the poet spoke, to all Roman citizens including very mighty powers, especially to the next generation, perceptively of the future of peace and prosperity which citizens could have, if they, starting from now, would cultivate and learn the moral virtues and attitudes.

---

\* Researcher, Jungam Academy for Greco-Roman Studies